

“인재양성에 최선 다할 것”

진각종 제10대 총인 도훈 정사

“종조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총인의 책무이기 때문에 법통을 승수하며 종단회합과 발전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진각종 제 10대 총인에 추대된 도훈 정사(사진)는 종조의 충실한 법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총인의 책무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총인 추대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어리둥절했다는 도훈 총인이 인의회의 추대를 거쳐 총인의 임기를 시작하면 종단 사업중 가장 힘쓰고 싶은 것이 인재양성이다. 도훈 총인은 “어느종단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종도들을 이끌어 갈 인재는 키우는 일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통리원 산하 교육원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실무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인재양성 제도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특히 종단 산하 교육기관인 위덕대와 진각대측과 많은 대화를 나눌 설립취지에 맞는 차별화된 인재양성 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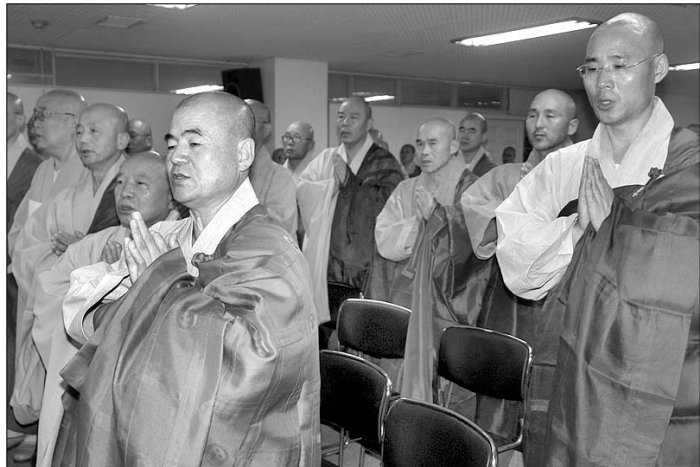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도훈 총인은 통리원장, 종의회 의장, 중앙교육원장 등 종단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쳐 왔기 때문에 행정 실무 경험 또한 풍부하다. 이런 이력을 십분활용

해 적극적으로 종단의 주요 정책에 조언을 많이 할 생각이다.

도훈 총인은 “교세확장과 종도 포교를 위해 진각종 주요경전인 <진각교전>의 참의미와 정신을 종도들에게 정확히 알려 항상 공부하고 불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훈 총인은 내년부터 추진될 한국불교전각문화전승원 건립불사와 창종 60주년 기념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주요 사업불사들이 여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선원청규편찬위원회가 10월 20일 편찬위 발족식을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 선원청규편찬위’ 발족

조계종 교육원과 전국선원수좌회는 공동으로 ‘조계종 선원청규편찬위원회’ 발족식을 10월 20일 불교대교회관에서 봉행했다.

수좌회 공동대표 현산 스님은 고분에서 “조계종 불조의 이심전심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수행가풍을 본받아 선불자의 기분이 되는 선원청규를 편찬하려 한다”고 밝혔다.

발족식에는 원로의원 원명스님과,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혜국스님을 비롯해 편찬위원장 의정스님, 현산, 영진, 의정, 철산, 신통스님 등 수좌회 임원, 교육원장 청화, 교육부장 법장, 불학연구소장 현종스님이 참석했으며, 해인총림 울주종진 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글·사진=배지선 기자

공원 안 사찰도 납골당 운영 가능

광주 문민정사 소송 승소

사찰 납골당 허가와 관련한 관할 관청의 무차별적 규제나 간섭을 막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자연공원 내 사찰들도 이제는 자연공원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납골당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광주 문민정사(주지 석장)는 도심 사찰로 2001년 법당을 신축하면서 법당내 납골당을 설치하려 했고 ‘장사등에관한법’의 제한규정(한강수계,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관청에 납골당설치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주지 석장 스님은 이에 2002년 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4년여의 소송기간을 거쳐 10월 13일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문민정사 납골당을 제한할 규정이 없으며, 건축허가과정에서 관청이 부당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석장 스님은 “공단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자신들의 ‘내규’를 근거로 부당한 규제를 일삼아 왔음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며 “앞으로 불교전통의 장례법인 납골당을 여법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검찰 마곡사 압수수색

조계종 “불교 경시한 것”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10월 11일 오후 7시경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종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태는 마곡사 주지 진각스님에 대해 검찰이 배임수재와 개인비리 혐의로 내사를 벌여오던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조계종은 이번 공권력의 압수수색이 불교계를 모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진상조사를 위해 호법부 등 종단 실무자를 현지에 파견했다. 또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통해 종단차원의 항의 사항을 검찰에 보내기로 했다.

혐의 내용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진각 스님은 불교계 신문에 참회사과문을 게재하는 한편, “총무원과 혐의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등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정교단 실현을 위한 시국대론회’를 23일 개최했다. 조용수 기자

자격시비·접수방해에 폭행까지 ...

조계종 14대 중앙총회의원 선거 총 110명 등록 ... 26일 투표

제14대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선거에 모두 110명의 스님이 10월 18일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종 등록결과, 20명을 선출하는 직능직 대표에는 28명이 출마했다. 비구니대표는 도문 스님 등 10명이 13일 열린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의 추천대로 모두 등록을 마쳤다. 직선으로 선출하는 24개 교구에도 총 72명이 출마했다.

직능직과 비구니대표는 23일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에서, 직선직 대표는 26일 각 교구별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그러나 선거 초반부터 후보등록 접수방해로 논란과 후보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종도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비록 일부 사례이기는 하지만 달라진 제14대 중앙총회의 모습을 바라는 종도들의 바람을 꺾지 않기 위해 중앙선관위(위원장 도공)의 엄격한 선거관리와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후보등록 거부논란을 빚었던 불교사 교구선관위는 포함 측립사 주지 종문 스님의 입후보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논란 끝에 후보자격을 인정받았다.

또 관음사 교구선관위위원장 현호는 지난 9월 주지 선거과정에서 갑등을 빚은 현 주지 반대파 법정 해민 스님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갑등을 빚고 있다.

제10교구 은해사에서 출마한 환성사 주지 도오 스님 폭행사건도 충격격을 주고 있다. 도오 스님은 후보등록을 마친 뒤 은해사 종무소에서 후스님, C스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출마자들의 입후보자 자격을 최종 확정하는 20일 162회 중앙선관위회의에서 관련자들의 소명과 이의제기 결과에 따라 이들 교구선거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한편 직선직 출마에 나선 스님들 가운데 각급선거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시행규칙

부칙 3조를 위반한 사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직능직 간선선출위원인 종상 스님이 11교구 불국사 총회의원으로 출마한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영배 스님도 비록 결직금지 규정이 없다고 해서 종립대학 이사장이 총회의원을 겸하는 것은 격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성실한 총회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위원장 김희옥)가 각종 비리와 부정에 연루돼 출마 부적격 스님으로 지목한 관음사 중원, 법주사 현법 스님을 비롯해, 불교박물관비리 당시 재무국장이었던 각원 스님이 법주사에 출마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총회의원의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문제가 있는 스님이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조용수 기자

위촉

본지 5기 논설위원

종호스님(동국대 선편역 교수) 월호스님(쌍계사 승가대학 교수)
 박찬현(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최순열(동국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권경희(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이상 6명 10월 15일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일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9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예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韓國 禪文化學會 2006년 定期 秋季學術大會

靑潭 大宗師의 思想과 韓國佛敎의 나아갈 길

- 일 시 : 2006년 11월 3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 장 소 :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
- 주 최 : 한국선문화학회
- 후 원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청담 문도회, 청담 장학문화재단

모시는 글
 三寶에 歸依하며, 부처님의 가피력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선문화학회가 “靑潭 大宗師의 思想과 韓國佛敎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2006년 定期 秋季學術大會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그동안 학계가 진행해 온 靑潭 大宗師의 思想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더 나아가서 靑潭 大宗師 思想의 21세기 한국불교에서의 좌표를 탐구하는 자리가 될 것 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시는 관계 분야의 모든 분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한국선문화학회 회장 이평래 합장

한국선문화학회 Korean Society For Seon Culture Studies

우)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 이평래(한국선문화학회 회장) · 연락처: 이덕진(한국선문화학회 총무이사) ☎(055)279-5917, 017-243-5838

일 정

- 제 1부
 - 개회식 (10시 00분~10시 50분) 사회 - 이덕진교수(청원전문대)
 - 삼귀의 및 반야심경 봉독
 - 개회사 : 이평래교수(한국선문화학회회장, 총대)
 - 법 어 : 지관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 축 사 : 현성스님(청담문도 대표)
- 제 2부
 - 학술논문 발표
 - 오전 발표(10시 50분~12시 30분) 좌장 : 해원스님(동국대)
 - 기조 발표 : 청담스님의 정화사상과 대한불교조계종/해자스님(도선사 주지)
 - 제1주제 발표 : 청담스님의 한국불교사에서의 위치/김선근교수(동국대) 토론 : 고영섭교수(동국대)
 - 제2주제 발표 : 청담스님의 견성사상/김용환교수(부산대) 토론 : 서재명박사(동국대)
- 점심공양(12시 30분~13시 30분)
- 제 3부
 - 오후 발표(13:30~16:00) 좌장 : 임병권교수(상명대)
 - 제3주제 발표 : 청담스님의 수행관에 대한 일고찰/김방홍박사(북경대) 토론 : 차차석교수(한신대)
 - 제4주제 발표 : 청담스님의 한국불교 정화운동에 대한 고찰/목정배명예교수(동국대) 토론 : 김광식교수(부천대)
 - 제5주제 발표 : 청담스님의 선사상과 21세기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김경집박사(동국대) 토론 : 김치은박사(동국대)
- 휴식(16:00~16:20)
- 제 3부
 - 종합 토론(16:20~17:20) 좌장 : 종호스님(동국대 교수)
 - 토론자 : 김선근교수(동국대), 고영섭교수(동국대), 서재명박사(동국대), 김용환교수(부산대), 김방홍박사(북경대), 차차석교수(한신대), 목정배명예교수(동국대), 김광식교수(부천대), 김경집박사(동국대), 김치은박사(동국대)